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연구>콜로키움

- ▶ 일 시: 2014년 8월 29일(금) 11:00~13:00
- ▶ 장 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외솔홀
-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부일정

2014년 콜로키움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소개」

사 회 : 임 지 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사 회 자
11:10~12:30	근거이론 강의	김 영 석 (동의대학교 교수)
12:30~12:5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2:50~13:00	폐 회	사 회 자

발표



질적연구방법론
근 거 이 론

김영석 교수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김 영 석 (동의대학교 평생교육 ·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1.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

1) 연구(research)란?

- 지식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개념. 지식의 종류: 1)권위적 지식: 한 개인으로부터 사상을 진실로 믿음 2)이성적 지식: 논리적이고 이성적 사고로부터 추출된 진실 3)실증적 지식: 인간의 오감을 통해 진실로 여겨지는 개념 4)직관적 지식: 느낌(감), 통찰력, 명상, 계시 등을 통해 진실로 여겨지는 개념
- 연구란 관심이 있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지식)을 발견하는 과정. 비슷한 부분에서 이미 밝혀진 연구결과에 덧붙여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는 체계적 활동

2) 연구 패러다임

- 연구 패러다임이란 연구자가 ‘현상을 인식하는 특정한 시각 또는 이론’(김영천, 2012) 또는 ‘한 연구자의 기본적 신념 체계(beliefs system)(Guba & Lincoln, 1994)를 뜻함.
- 패러다임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실증주의(positivism), 해석주의/구성주의(interpretivism/constructivism), 비판이론(critical theory), 포스트모더니즘/후기구조주의적(postmodernism/poststructural) 패러다임으로 구분함(김영천, 2012; Merriam, 2009).

(1) 실증주의(positivism) 패러다임

- 서구 사회에서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유를 통해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음을 천명하려했던 근대주의의 산물(이혁규, 2004)
- 근대이후 오랫동안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사회과학에서도 공식적 담론을 지배해온 연구 패러다임
- 실재(realities)란 시간 또는 환경과 상관없이 불변하는 자연 법칙과 메카니즘에 의해 존재(Guba & Lincoln, 1994)
- 인간의 지각과 별도로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며(김영천, 2012), 연구를 통해 절대적 진리는 양적으로 측정 및 이해가능(Crotty, 1998)

(2) 해석주의(interpretivism)/구성주의(constructionism/constructivist) 패러다임

- 실재란 실재에 다가가는 인간의 경험에 따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존재함(Guba & Lincoln, 1994).
-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성에 영향을 받아 구성(construction)됨(김영천, 2012)
- 연구의 목적은 연구 현상이 갖는 의미를 최대한 풍부하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Lincoln, Lynham, & Guba, 2011)

(3) 비판이론(critical theory) 패러다임

- 실재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인종적, 성별적 요소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함(Guba & Lincoln, 1994).
- 사회 내 인종, 성별, 경제적 계층, 교육, 종교 등에 근거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지식 역시 불평등한 권력 구조 속 산물임(이혁규, 2004).
- 해석주의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구성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 비판이론에서는 자료 속에 존재하는 연구참여자의 불평등한 인식과 사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김영천, 2012; Merriam, 2009)

(4)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패러다임

- 근대주의(modernism)에서 강조한 합리성(rationality), 과학적 방법,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절대적 진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Merriam, 2009)
- 사회의 거대담론 속에 존재하는 진리의 개념을 해체하고 절대적 진리성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폭로(김영천, 2012)
- 기존의 이론/지식이 갖고 있는 근대주의적 태도를 ‘해체’하고, 지속적 자기비평과 개방성을 토대로 이론/지식의 타자성(otherness)과 다성성(plurality, 多性性)이 부각된 새로운 현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영천, 2012).
-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활용하는데 다른 패러다임과 비교해 실험적이고, 유희적이며, 창의적이라는 특성 존재(Merriam, 2009)

3) 연구의 틀/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

- 연구 문제의 형성과 연구의 과정, 결과 예측 등에 영향을 준 이론 혹은 기존 연구 결과
- 연구주제와 연구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문헌
- 연구자가 주로 참고를 많이 한 문헌을 살펴보면 이론적 틀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틀은 ‘자아정체감’, ‘여성주의’, ‘학습동기이론’ 등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음.
- 김나현(2007)의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에서 이론적 틀은 '은퇴이론'. 김효경, 윤창국(2014)의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계 변화과정과 의미”에서 이론적 틀은 ‘확장학습’임.

4) 연구방법론(Methodology)

- 연구의 디자인,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법
- 질적 연구의 대표적 연구방법론으로는 근거이론, 현상학,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탐구 등이 있음.

2. 근거이론 소개

1) 근거이론의 인식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symbolic interactionism*)

- 초기의 사회학은 사회의 성립 및 사회 속 개인의 위치를 기능, 구조, 계급, 갈등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봄.
- 19세기 말 부터 다양한 미시적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식과 결과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 미드(George Herbert Mead)와 블루머(Herbert Blumer)로 대표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모든 인간들의 상호작용은 언어를 포함한 ‘상징’의 의미 해석과 교환을 통해 발생한다고 가정함.
- 인간은 타인, 환경, 사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함.
- 인간은 타인, 환경, 사건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의식을 형성함.
-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과 사람, 환경 및 사건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중시함.
- 사회 현상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의 거시적 측면(계급, 구조, 차별 등)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임.

*참고:http://cafe.naver.com/kedi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475

2) 근거 이론의 주요 개념

- 1960년대에 ‘과학적’ 연구과정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과도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근거이론 탄생
- 근거이론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적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방법론
- 실질적 이론이란 연구 참여자와 현상간의 상호작용 및 주변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는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됨

(예측이 목적이 아님).

-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주요 속성뿐만 아니라 현상을 둘러싼 핵심적 사회 맥락, 참여자의 심리적 과정 및 변화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가능

3) 근거이론의 발전 역사

(1)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번역서: 근거이론의 이해, 출판연도: 2011년, 역자: 이병식 외, 출판사: 학지사]

: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대가인 Strauss가 UCSF의 간호대학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이론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초보 사회학자인 Glaser를 연구에 초청했음. 둘은 'Awareness of Dying'(Glaser & Strauss, 1965)를 출간하면서 최초로 '근거이론'을 개발함.

(2)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번역서: 근거이론의 이해-간호학의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출판연도: 1996년, 역자: 김수지 외, 출판사: 한울출판사,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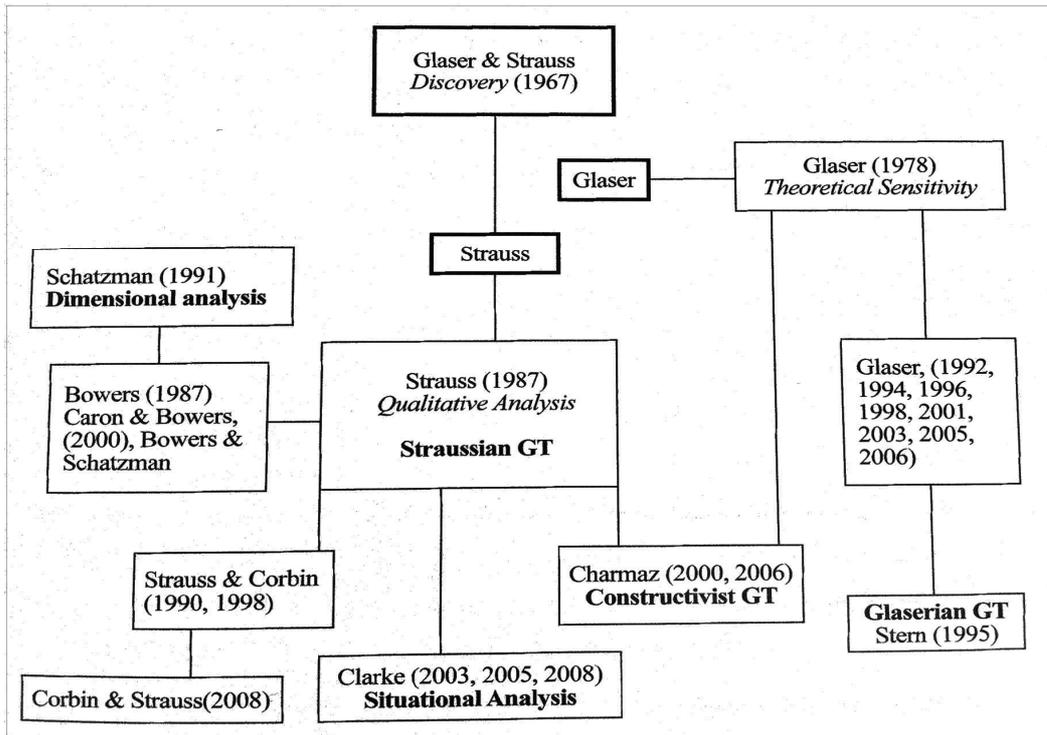
: Strauss가 그의 제자 Corbin과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하고자 하였음.

(3)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번역서: 근거이론의 단계, 출판연도: 2001년, 역자: 신경림 외, 출판사: 현문사, 절판]

: 1판이 예상외로 인기가 있게 되어 2판의 제작에 들어갔으나 Strauss가 1996년에 사망하였고, Corbin은 1판과 큰 차이를 만들지 않고 2판을 제작함.

(4)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번역서: 근거이론, 출판연도: 2009, 역자: 신경림, 김미영 외, 출판사: 현문사]

: Corbin은 기존의 Strauss가 개발한 분석법에 자신의 주관주의적 연구태도를 도입하여, 근거이론의 본래 취지에 가깝도록 재진술함. 3판과 2판의 내용의 차이가 큼.



[그림 1] 근거이론의 계통 (출처: Morse 외, 2011, p. 19)

3. 근거이론의 실행방법: Strauss & Corbin (1998) 방법을 사용하여

1) 연구에 적합한 주제

-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현상의 실질적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참여자가 타인 및 주변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관심이 있는 경우

2) 표본수집방법: 이론적 표본수집(*theoretical sampling*)

- 표본의 모든 대상은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 중에 변형, 발전하게 됨.
-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진행된 자료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의 차이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표본을 선정하여 수집하게 됨.
- 연구 초기에는 연구문제, 연구의 실질적 환경, 예비연구결과, 문헌분석결과, 연구자의 기존 경험 등을 토대로 초기 표본수집 대상이 선정됨.
- 연구가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누적된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실시하고,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범주의 새로운 속성과 차원의 표본을 수집함.
-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 자료 분석을 통해 각 범주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결과가 밝혀지지 않거나, 범주 하의 속성과 차원의 충분히 발전되었거나, 범주간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된 상태(포화 상태)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함.

3) 자료 분석 방법

(1) 개방코딩(*open coding*)

- 연구 초기에 실시되는 자료의 개념화 작업
- 전사된 자료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의 최소단위인 코드(*code*)로 분할
- 자료를 코드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열어 쪼개서' 그 안에 포함된 연구

- 참여자의 생각과 의미를 발견해야 함.
- 코드 분할을 마친 후 자료는 꼼꼼히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게 됨.
 -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해 의미상 관련이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코드(사건, 의미, 작용 등)를 동일한 '범주'(category)로 분류하게 됨(추상적 사고력 필요).
 - 범주의 이름은 같은 범주에 속한 코드들의 공통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석적 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범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범주가 결정되면 이는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하며, 범주의 고유한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 '속성'이란 하나의 범주의 특성/특질인 반면에, '차원'이란 연속선상에서 한 속성의 위치의 표현
 - 예를 들어 '색'이 범주라면, '명도, 채도, 색상'은 속성이며, '어두운 것에서 밝은 것', '높은 것에서 낮은 것', '환한 것에서 칙칙한 것'은 차원임.

(2) 축코딩(axial coding)

가. 개념

- 인간 안에는 주변 현상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함.
- 축코딩의 목적은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기
- 범주들간의 관계를 연결해서 연구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조직적 도식 즉 패러다임이 있게 되면 유용함.
- 패러다임은 연구 현상의 구조 혹은 맥락과 연구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이나 행위의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
-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조건(conditions)**, **행동/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의할 점은 패러다임은 연구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틀이 아니라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한 분석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나. 패러다임의 구성요소

① 조건

- 현상과 관련된 상황, 쟁점,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단의 사건이나 일로서, 왜, 어떻게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지 설명해줌.
-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조건 → ‘왜’, ‘무엇 때문에’ 특정한 행동/상호작용의 양상이 나타났는지 파악 필요
- **중재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증가시키는 조건 → 인과 조건에 의한 사람들의 행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순화된 형식으로 표출되는데 매개적 역할을 하는 조건
- **맥락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참여자들의 행동/상호작용이나 연구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 → 인과적 조건이나 중재 조건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인과적 조건과 중재 조건은 맥락 조건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하게 됨.

② 행동/상호작용

- 연구참여자가 자신들이 마주친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는 방식
- 조건 속에서 관심 현상과 관련하여 개인, 혹은 집단이 구체적으로 보인 의도적 혹은 일상적 대응양상
-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갖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의 교류과정을 통한 생각의 타협과 조정과정도 포함됨.

③ 결과

- 행동/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행동/상호작용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
- 결과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음.

다. 관계진술(relational statement)

- 축코딩을 통하여 나온 다양한 범주들간의 가설적 관계를 진술하여 연구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
- “~한 조건에서 ~ 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 한 결과가 나타났다”식의 진술 가능
- 관계진술을 진행할 때 범주의 속성, 차원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 진술이 가능함.

(3) 선택코딩(selective coding)

- 선택코딩은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하는 과정
- 축코딩을 통해 밝혀진 범주들은 선택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론’으로 통합됨.

가. 핵심(중심) 범주(core category) 선정

- 다양한 범주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준이 되는 핵심 범주 선정이 필요함.
- 연구 문제와 관련된 중점 주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한 두 단어로 응축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주 선정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
- 핵심 범주는 기타 다른 주요 범주와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분석적 힘이 있어야 함.

나. 이야기 윤곽(story line) 적기: 통합을 도와주는 기법

- 핵심범주와 축코딩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연결지어 이야기 윤곽 만들기(모든 범주를 이야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 진술을 통해 ‘이 조건들은 이 현상이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나 ‘이 행동은 이 결과를 유발한다’ 등의 이야기 보여주기
- ‘연구참여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는 중심 쟁점이나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이 계속 나의 마음을 치고 있는가?’라는 질문 문기가 도움이 됨.

다. 그림/표 그리기: 통합을 도와주는 기법

- 그림/표 그리기는 분석자가 자료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중요한 개념 및 개념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줌.
- 그림/표는 연구 과정에 나타난 모든 개념을 담을 필요는 없지만 주요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그림/표는 많은 추가 설명 없이도 명백해 보이는 논리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너무 복잡해서는 안됨.

(4) 과정분석

- “과정이란 시간의 흐름과 공간 및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변화하거나 때로는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작용/상호작용이 이루는 일련의 발전하는 순서”
- 과정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고, 맥락의 변화에 대해 작용/상호작용이 발전(변화 혹은 동일)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작용/상호작용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과정이란 질서정연하거나, 중단된 것이건, 순차적이거나, 조정된 것이거나, 뒤죽박죽일 수 있음.
- 과정분석이 갖는 이점은 범주들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주요 범주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현상’이 ‘작용/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중심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여줌.

(5) 유형분석

- Strauss & Corbin (1998)이 제안한 기법은 아니지만, 요사이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 일반적으로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의 차이에 따라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2-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함.

※ 주의 사항 ※

“연구 현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들을 인과, 중재, 혹은 맥락 조건으로 구분하고 나열하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들 조건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서 어떻게 일련의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연구자로서 중요하다.” (Strauss & Corbin, 1998, p. 132).

“기술과 절차는 연구자가 이용하는 도구이다. 즉 연구자는 방법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고수해야 할 일련의 지시서가 아니다. 연구자는 일련의 코딩 절차를 따르는 것에 너무 압도되지 말아야 질적분석의 유연성과 역동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 (Corbin, 2011, p. 47).

참 고 문 헌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orbin, J. (2011). 분석적 여행을 하는 것(Taking an analytic journey). In Morse, M. et al, 신경림 외 공역. 근거 이론의 발전(Developing grounded theory), pp. 41-62. 서울: 하누리. (원본 2009년)
- Crotty, M. (1998). The foundations of social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Guba, E., & Lincoln, Y.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05-117). Thousand Oaks, CA: Sage.
- Lincoln, Y., Lynham, S., & Guba, E. (2011).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revisited. In N. Denzin, & Y.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pp. 97-128). Thousand Oaks, CA: Sage.
- Merriam, S.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 San Francisco: Jossey-Bass.
- Morse, M, Stern, P., Corbin, J., Bowers, B., Charmaz, K, & Clarke, A. 신경림 외 공역 (2011). 근거이론의 발전(Developing grounded theory). 서울: 하누리. (원본 2009년)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권혜진 (1995).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현 (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21, 253-288.
-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론 1: Bricoleur (2판).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김한별 (2012). 결혼초기 부부의 적응과정에서 학습경험 탐색: 근거이론 접근. 교육문제연구, 44, 1-35.
- 김효경, 윤창국 (2014). 확장학습을 통한 노인학습자의 활동체계 변화과정과 의미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7(1), 175-210.
- 정서린, 기영화 (2011). 대학원 준고령 학습자의 경험을 활용한 학습 과정 탐색: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HRD연구, 13(4), 137-170.

〈 근거이론 관련 도서 〉

- Charmaz, K.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Constructing Grounded Theory). 서울: 학지사.
- Schreiber, R., & Stern, P. 신경림, 김미영 공역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서울: 현문사.
- 최종혁 (2011).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과 수정근거이론의 실제. 서울: 신정.

〈 근거 이론 분석의 예 〉

1. 출처: 권혜진 (1995).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 연구목적: 사회적 요인(대인관계포함)에 의해 분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간호중재에 기여할 실체 이론의 개발
3. 연구대상자: 중고등학생, 대학 1학년생
4. 주요 인터뷰 질문
 - 1) 어느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가?
 - 2) 가장 최근에 화가 난 사건 및 경험은?
 - 3) 화가 난 직후 나의 모습은(드는 생각은)?
 - 4) 화가 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 개 방 코 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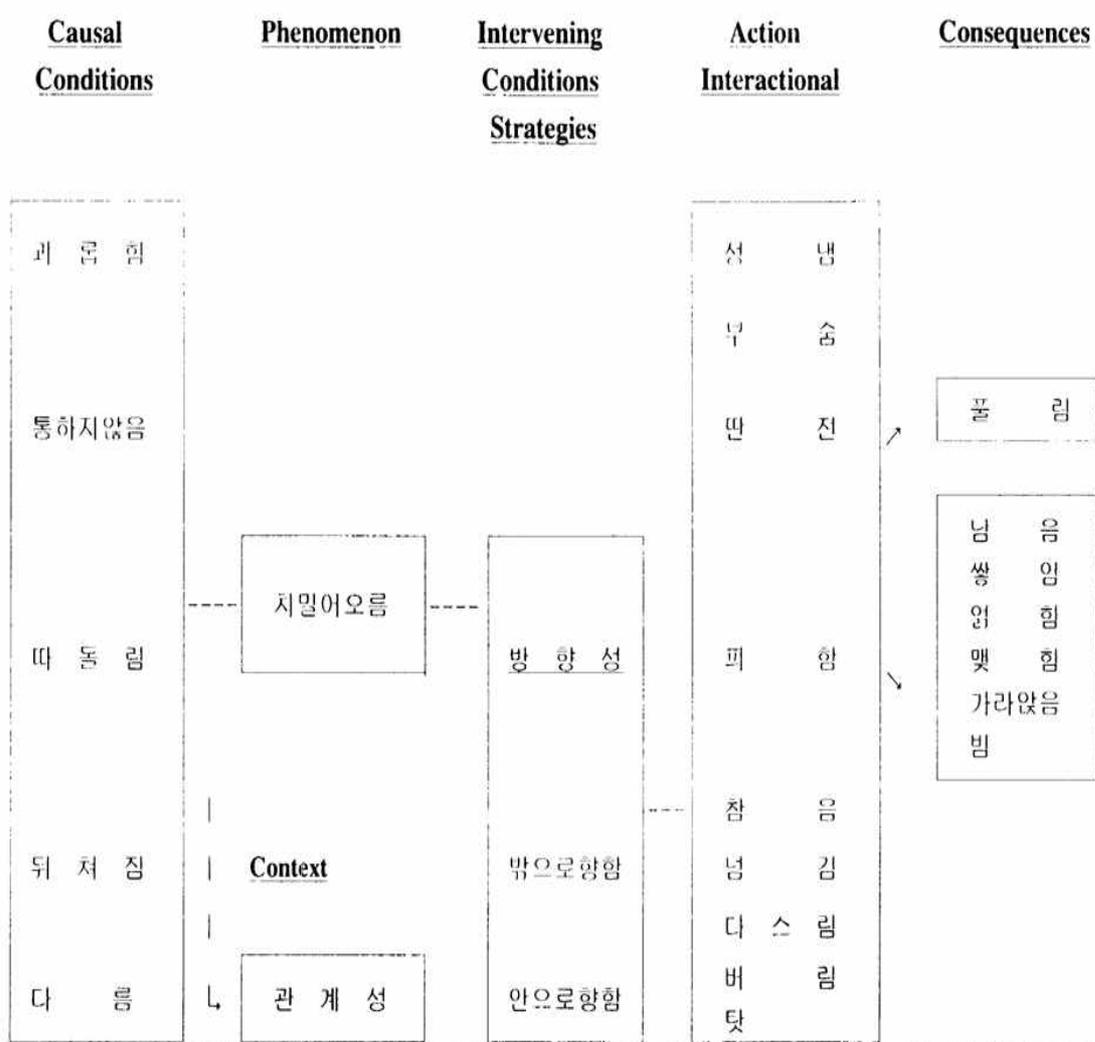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귀찮게 함, 말시킴, 물고 늘어짐, 비난, 잔소리, 화풀이 당함, 놀림, 캐묻기, 깎아 내림, 강요, 속박, 시비, 모함, 혼남	괴롭힘	자 극	인과적 조건 괴롭힘 통하지 않음 따돌림 뒤쳐짐 다 룬
몰이해, 가치관의 차이, 분신, 견해차, 일방적 의사결정, 대화불능, 강압	통하지 않음		
비교, 무시, 차별, 배신, 따돌림	따돌림		
성적부진, 계획차질, 가정분화, 무기력, 열등감	뒤쳐짐		
세대간 갈등, 형제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종교적 갈등	다 룬		
폭발, 기분 나쁨, 질투, 치명, 화남, 복수욕, 미움, 경멸감	남이 미움	밖을 향한 흐류	중심현상 : 치밀어 오름
가출충동, 도피충동, 포기욕	벗어나려 함		
연오류, 신경질, 답답함, 싫음, 속상함, 짜증남, 억울함	끓어오름	안을 향한 흐류	
절망감, 자기비하	내가 미움		
가족관계, 노소, 친소, 성별, 권위	상대방과의 관계	관계성	⇒ 맥락 : 관계성
밖으로 향함, 안으로 향함	방향성	성 향	증재상황 : 방향성

화냄, 대들, 싸움, 짜증냄, 울음, 따짐, 경고, 버텨	성냄	직접적 표현	전략 :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억압적 표현
던지기, 부수기, 두들기기, 찢기	부 슴		
폭식, 수면, 낙시, 쓰기, 음악듣기, TV보기, 치장, 배회, 쇼핑, 수다, 화풀이함	만 전	간접적 표현	
회피, 농경, 혼자 있기, 잊으려함, 흘려보냄, 침묵	피 함	억압적 표현	
참음, 자제,	참 음		
넘김	넘 김		
가라앉힘, 삼킴, 중얼거림, 되새김	달 령		
삭힘, 이해	삭 힘		
체념, 포기	버 림		
전가	탓		
후련함, 시원함, 편함, 풀림, 망가, 휴가분함	풀 림		긍정적 해결
후회, 지숙, 남음	남 음	부정적 해결	결과 : 긍정적 해결 부정적 해결
쌓임	쌓 임		
억힘, 어색함	억 힘		
맺힘	맺 힘		
진정	가라앉음		
허달함	빚		

〈 관계 진술 〉

- (1) 대상자가 인식하는 자극의 강도가 클 수록 “치밀어오름”이 강해 질 것이다.
- (2) 상대방과의 관계가 가까울 수록 “치밀어오름”은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멀수록 억압적 간접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3) 대상자가 인식하는 상대방의 권위가 클 수록 “치밀어오름”은 억압적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작을 수록 직접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4) 상대방의 나이가 많을 수록 “치밀어오름”은 억압적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적을수록 직접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5) 대상자의 성격적 방향성이 밝을 향할수록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안으로 향할 수록 억압적 간접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6) “치밀어오름”이 강할 수록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약할 수록 억압적 간접적으로 표현될 것이다.
- (7) “치밀어오름”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록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표현될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록 부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 패 러 다 임 〉



〈 이야기 윤곽 〉

청소녀의 분노현상은 “치밀어오름”의 생성-변형-발전-표출-해결과정이었다. 치밀어오름은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이었으며, 이 에너지는 안과 밖 중 어느 한 방향을 향해 흐르고있었다. 에너지가 크면 “치밀어오름”은 일단 밖을 향해 넘쳐흐르려고 하지만 상대방과의 친소관계, 노소, 권위 등과의 작용/반작용을 통해 거꾸로 대상자의 내면을 향해 역류할 수도 있었다. 이같은 안, 또는 밖을 향한 흐름은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 억제 또는 촉진되었다.

“치밀어오름”의 흐름이 밖을 향할 때도 상대방과의 친소관계 등 구조적 상황과의 작용/반작용 과정에 따라 인적대상 또는 물적대상을 향해 흐르거나, 보상적 행동을 통해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해결되었다.

“치밀어오름”이 대상자 자신을 향해 흘러가 내재화되면 따로 출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오랫동안 내면 속에 머물고있었다. “치밀어오름”은 치밀어오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을 향해 직접 흐르거나 가까운 방향으로 흐를 때 에너지의 발산이 신속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더 먼 곳으로 흐를수록 더 긴 시간이 필요하였다. 어느 경우에도 “치밀어오름” 에너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해결되었지만 자신을 향해 역류한 에너지는 자신과 충돌해 외상적 경험으로 나타나며 남은 에너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소진되었다.

〈 과정 분석 〉

1) “치밀어오름”의 유발 - 생성과정

“치밀어오름”이라는 현상의 전개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사건은 외부적 자극이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치밀어오름”의 생성이었다. “치밀어오름”에 관한 한 환경과 개체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개방 체제로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작용/반작용을 통해 연속적인 상호수정을 하는 축차적 변화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2) “치밀어오름”의 변형 - 발전과정

“치밀어오름”은 유발-생성과정 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형-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치밀어오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기계적 반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또는 관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적 유형을 바탕으로 시간의 화살을 따라 변형되고 발전하는데 이는 추상적 개념과 상상, 언어와 사고 그리고 감각과 정서를 가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3) 전략의 선택과 “치밀어오름”의 표현 - 표출과정

“치밀어오름”의 생성, 변형과 발전에 뒤이어 대상자는 전략을 선택하고 “치밀어오름”을 표현하였다. “치밀어오름”의 표현은 “치밀어오름”에 대한 단선적인 작용/반작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인간이 가진 자기조절 능력의 결과이며, “치밀어오름”의 표출도 환경과 개체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장 즉 관계성 그리고 성격적 방향성 또는 성향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났으며 시간적으로 변형-발전 과정을 보였다.

4) “치밀어오름”의 해소 - 해결

“치밀어오름”은 생성으로 시작되어 해결로 끝나는 시간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해소는 “치밀어오름”의 에너지가 해결되는 긍정적 해결 뿐 아니라 억압이나 간접적, 보상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 해결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결과의 발생과 함께 하나의 현상으로서 “치밀어오름”은 종료되었다. “치밀어오름”이 인간장과 환경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행은 확률적 목표지향성을 기본적인 성격으로 가지며 따라서 변형-발전 과정상의 작용/반작용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즉 주어진 맥락과 상황의 차이에 따라 귀착점이 서로 달라졌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pattern that is partially obscured by a decorative white scalloped border at the bottom of the page.

질적연구방법론: 근거이론

인 쇄 2014년 8월 28일

발 행 2014년 8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노 혁

등 록

인쇄처 유진문화사 전화 02)576-2358 대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